

“K-SMR로 Game Changer의 First Mover가 되길”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박병석 국회의원님과 원전 건설을 마케팅하기 위해 체코 두코바니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통령을 만났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한 것을 왜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가 순방 중에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의 생태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SMR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강국들도 SMR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자국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하는 상황입니다. SMR을 개발하기 위해서 SFR(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빌 게이츠도 일찍이 SFR 기술에 대해서는 꿈의 원자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둘러 SMR 개발을 위해서, 예타가 통과되어, 에너지 시장의 Game Changer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SMR 기술은 단순히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잠수함에도 이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루 빨리 K-SMR 기술을 박차를 가해서 Game Changer의 First Mover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MIF**